

축 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기해년(己亥年) 한해가 저물어 가는 시기에
우리지역 교육현장을 찾아 학생, 교직원, 교육공동체의 어려
움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해답을
구하고자 ‘2019 교육감 경청 올레’ 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온 군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먼저, 2019 완도교육가족, 도교육청, 지자체가 함께하는
경청올레 개최를 위해 정성을 다해주신 완도신문 **김정호**
대표님과 완도군 **김명식**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찾아주신 전남도교육청 **장석웅** 도교육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연말연시 바쁘신 중에도
완도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신우철 군수님과 관내 교장선생님,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님과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교육은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공부만 잘해서 잘사는 시대는 아니다 라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다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개최하는 ‘2019 교육감 경청 올레’는 직접대화 형태의 간담회로 수평적 관계에서 경청하는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깊이 있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완도교육의 혁신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도 완도군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청올레 간담회 자리가 완도군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로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및 협력문화 조성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2019 교육감 경청 올레’ 개최를 축하드리며, 우리 완도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현장 중심의 밀착형 교육정책으로 성장 발전해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